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4월 7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73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구원의 은혜에 더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신은지 -

저는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에서 구역장과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제 삶에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년 시절의 저는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이 유교 사상과 관습을 철저히 따르고 있어서 자유롭게 교회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전도하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친구랑 놀고 과자 같은 선물을 받는 것이 좋아서 부모님 몰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자 그때 들은 성경이야기와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혼자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은 것이 큰 죄로 느껴지고 교회가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 않던 한 친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관심이 생겨 다가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교회에 같이 가자는 그 친구를 따라서 돌아온 주일에 은혜와진리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무척 오랜만에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고 또 그날이 성령충만기도회를 하는 날이어서 처음에는 분위기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학업문제, 가정문제로 힘들었을 때 친구와 선생님이 성경말씀과 기도로 위로해 주고 응원을 많이 해주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참가한 여름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슴에 간직하게 되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 후로 공부하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어느 대학교를 가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수능성적은 기대 이하로 나왔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했

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두 학교 중 한 곳에 합격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학과만 생각하고 지원하여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입학해서 보니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였습니다. 거의 매일 한 시간씩 채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고 성경과목도 꼭 수강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중에는 학교에서,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특히 주일에 교회학교에서 유년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치면서 저 또한 성경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울동하고 노래 부르며 찬양하는 예쁜 모습,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여서 섬겨 봉사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더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매일 아침 교사들이 먼저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하는 유치원에 취업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은혜로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업무가 많아지고 바쁘다 보니 수시로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주중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중에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학교 유년부에서 같이 교사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교제하게 된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도 예배중심의 생활을 하기 바라는 저의 뜻을 그가 적극 지지해주고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유치원 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꿈에 그리던 해외선교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선교연합회의 해외선교팀 일원으로 인도와 미얀마의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빠듯한 일정에도 조금도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고 주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계선교를 위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체험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시국이 한창 혼란스러울 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관하는 '153아카데미'의 강의를 들으며 올바른 국가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함양하고 우리나라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10월 3일 '한국교회 기도의 날' 성회에 저희 부부도 기쁘게 참석하여 간절하게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날 기도하고 헌신하는 보람을 느끼며 실로 가슴 뿌듯하였습니다.

구역예배와 모임에 참여하여 구역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중한 구역장 직분을 주셔서 더욱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구역을 섬기는 중에 제가 참여한 GNTC인형극팀이 '다윗과 골리앗'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성경 학교 기간에 차례로 여러 성전을 순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교회학교 어린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를 갖기 위해 함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곧 반가운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출산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고 몸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하였지만 저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병원 곳곳에 성경말씀이 적혀 있고 간간히 흘러나오는 찬송가 가사와 곡조가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가족들, 성도님들의 기도와 보살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아픈 중에도 용기 백배하여 건강한 아들을 순산하였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출산해서 그런지 아이에게 황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치료를 도와주셔서 저와 아이 모두 곧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출산 후에도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어서 아이와 함께 저희 부부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루속히 교회당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라며 기도하였고, 드디어 이전처럼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자 한없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은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주일예배와 유년부 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와 또 구역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작년에는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천국에 가셔서 한동안 많이 슬펐지만 교구와 교회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깊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장례예배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은 그의 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천국소망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예배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던 남동생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는 이 고백이 오늘 제 삶에 가득하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 모두 은혜와 진리교회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1권 (7단원 : 성도의 사명) (제43과) 치유의 사명

- 본문 : 야고보서 5:14-16
- 요절 :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 찬송 : 528장(새찬송가 471장), 530장(새찬송가 472장)

사람은 그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병들어서 고통을 당해 보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람이 일단 병들어 앓게 되면 지위, 명예, 권세도 부럽지 않고 오직 건강하기만을 소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질병의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상고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병을 고치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진리와 사명을 잘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며, 사이버 치료자들이 병든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신유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치유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1. 병 고치는 일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기독교는 신유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영과 마음과 육신을 다 고칩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마 4:23,24)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3분의 2를 병든 자를 고치는데 보내셨습니다. 4복음서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의사이심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함께 병을 대속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나시기 7백여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었도다”(사 53:4,5).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혼의 구원과 신유의 복음을 계속하여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밟으며 무손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5~18).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가 복음전파와 신유와 이적이 병행되어야 함을 망각하고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병고치는 일은 병원에 맡기고, 교회는 영혼 구원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 신유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마음을 바꾸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이며 이는 과녁을 향해 쏜 화살이 과녁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이 곧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려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나, 죄와 병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와 병고침을 함께 행하셨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왔을 때 주님은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중풍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이킨 후에는 생활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불결한 생활, 무절제한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참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절도 있고 성결한 생활로 바꾸어야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2)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병이 기승을 부립니다. 공포, 슬픔, 시기, 분노, 혐오와 같은 감정들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을 받으려면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증오와 분노는 용서로써 다스리고, 근심이나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쫓아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학대를 하고 자기연민에 빠져 있으면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인식할 때 자기학대와 자기연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3) 병 낫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약 5: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신유의 믿음에 의심은 주는 그릇된 지식을 물리쳐야 합니다.

“신유의 기도는 헛된 것이다,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병이 낫지 않고 천국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치유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이 멈추거나, 화학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제거되거나, 병의 진행이 중지되거나, 서서히 치유되거나, 급속히 치유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병을 치료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치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로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재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